

연령주의 관점에 근거한 노인복지주택 거주민의 주거공간인식*

김 나 리**

Residential Space Perception of Elderly Welfare Housing Dwellers based on Ageism

Na Ri Kim

요약: 우리나라 노인복지주택은 고가의 분양가와 생활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노인인구 집단만이 소비 할 수 있고 거주 가능한 노인들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노인차별적인 배타적 연령주의와는 무관한 집단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주택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주택의 공간적 속성을 규명하고, 연령주의 관점을 적용하여 거주민들의 주거이동 메커니즘을 탐색 해 봄으로써 주거공간 변화가 거주민들의 연령주의 인식에 미친 영향을 거주민의 주거공간인식을 바탕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 노인복지주택 거주민들은 대부분 고학력, 고소득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았고, 주거공간 변화로 인해 주거 소비·생활 행태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거주민들은 주거이동 이전과 이후에 경험한 연령주의 인식 변화에 따라서 각기 다른 주거공간인식을 나타냈다. 거주민들의 주거공간인식은 '노화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공간', '연령주의로부터 분리된 공간', '연령주의를 지속시키는 공간', '연령주의를 유발하는 공간' 등 4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나타낼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노인인구 집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공간 환경의 변화가 노인들의 연령주의 인식에 강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의 공간인식에 대한 이해 없이 물리적 공급에만 치중 한 현 노인복지 주택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요어: 연령주의, 노인복지주택, 주거공간인식, 상위 노인인구 집단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토문제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출간된 논문임.

**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졸업

Abstract : Elderly welfare housing of our country requires the expensive purchase price and cost of living, so only limited elderly people can purchase it, and the elderly people who can live in it are regarded as the group that has nothing to do with elderly discriminating exclusive ageism according to market economy principle. In this research, the researcher established the spatial properties of the elderly welfare housing with the residents of elderly welfare housing as the subjects, and based on the residential space perception of the residents, categorized the effects of changes in residential pace on the perception of ageism through exploring the mechanism of the residents' movement of house by applying the viewpoint of ageism.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the socio-economic position of most of the residents of elderly welfare housing was high, with high level education and high income, and their forms of residential consumption life also differed from the previous ones due to changes in residential space. Meanwhile, the residents were found to have different residential space perception according to changes in ageism perception that they experienced before and after the movement of house. The residents' residential space perception could be categorized into 4 types °™ 'space to cope with aging', 'space separated from ageism', 'space that continues ageism', and 'space causing ageism. Through this research, it could be seen that changes in spatial environment acted as strong influential factors for the ageism perception of elderly people regardless of socio-economic positions of the elderly group. These results have great implications for elderly welfare housing policy that emphasizes only physical supply without understanding of elderly people's space perception.

Key Words : ageism, elderly welfare housing, residential space perception, the upper elderly group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사회활동 중단과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쇠퇴를 경험하게 되는 노인인구집단에게 주거공간은 심리적 안정과 건강상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주택은 고가의 분양가와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류층만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보급되고 있고, 전체 노인복지주택의 80%정도가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지역 불균형 또한 크다. 따라서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경제력을 기반으로 노인복지주택을 소비하는 노인인구 집단에 대해서는 선택적 친화력을 보이는 동시에 배타적 연령주의(ageism against the aged)의 관점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하위집단에 속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주장되는 상대적인 관점일 뿐 증명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을 연구 대상 지역으로 삼아 거주민들의 주거이동 과정과 이동 이후의 주거공간 인식을 연령주의 관점을 적용하여 탐색함으로써 그 영향을 증명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거주민들의 주거공간인식을 바탕으로 노인들만이 점유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의 공간성 또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구분되는 ‘노인복지주택’으로 연구 범위를 축소시킴으로써 노년기에 접어든 노인인구집단 중 상대적으로 주거공간에 대한 적극적 선택을 경험한 노인들로 한정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 중 약 45%는 서울에 입지하고 있고 약 27%가 경기도에 입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지역은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노인복지주택 중 두 곳의 주택을 선정하였고, 해당 주택의 거주민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의 거주민이 모두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곳¹⁾

둘째, 운영주체의 안정성과 건전성, 대형 대학병원과의 연계를 이룬 곳²⁾

셋째, 거주민들의 정보 구득이 용이한 곳³⁾

그 결과 연구지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3-91에 위치한 ‘노블레스 타워’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97-2에 위치한 ‘서울시니어스분당타워 노인복지주택’으로 선정할 수 있었고, 두 주택의 거주민들 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의 문항설계와 분석은 거주민 주거행태 변화 분석을 위한 부분과 주거공간인식 도출을 위

1) 2008년과 2011년의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특성을 이용하여 65세 미만의 사람들도 거주가 가능한 곳이 많다.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6개의 노인복지주택 중 5개의 노인복지주택이 65세 미만의 사람들의 거주를 허가하고 있다.

2) 민간이 공급하는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노인주거복지시설로 분류되긴 하나, 모든 서비스는 거주민의 보증금으로 운영되어지기 때문에, 운영업체가 부실하면 지속적인 운영이 힘들다. 또한 실제로 운영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거액의 보증금을 날리고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사례가 대중매체(동아일보, 2006,05,09)를 통해 소개되기도 하였다.

3) 노인복지주택은 대부분 외부인에게 매우 제한적이고 폐쇄적이다. 따라서 거주민들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출입조차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해 Q 분석이 가능한 부분 등 두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복지주택 거주민의 '주관적 인식' 도출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분석방법으로 인간의 주관성을 수량적으로 도출해 내는 데 적합한 방법론인 Q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2.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연령주의(Ageism)의 개념과 측정방법

연령주의(Ageism)란 용어는 1969년 무렵 미국 국립노화연구소(NIA) 초대 소장이었던 로버트 버틀리에 의해 최초로 사용되어졌다(Bytheway & Johnson, 1990). 일반적으로 연령주의는 각기 다른 사회·문화적 특징이 반영되어 깊숙이 고착된 '특정 연령집단을 바라보는 일방적인 인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연령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고령자 집단이 연령주의의 대상이 되곤 한다(Levin & Levin, 1982). 본 연구에서는 다른 관점에 비하여 각기 다른 사회의 문화적 힘과 주관적 인식, 태도 등을 강조한 Bytheway(1995)⁴⁾의 연령주의 관점을 적용하였다. 이는 가변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의 연령(주의)을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노인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수치적으로 측정하

려는 시도는 1944년 초 Dinkle(1944)의 연구로 거슬러 올라간다.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된 연령주의 척도들은 시대별로 조금씩 상이한 관점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연령주의 척도를 노인인구의 주거이동 과정에 적용함으로써 노인복지주택 거주민들이 주거이동 과정을 비롯한 현재 주거공간에 대하여 형성되어 있는 인식과 태도에 우리나라의 연령주의가 미친 복합적 영향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첫 번째 Palmore의 척도는 국내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석 틀이고, 노화불안 척도(ASS)는 외부적인 요소에 의한 것이 아닌, 본인이 노인일 경우 혹은 노인이 되었을 경우의 인식될 수 있는 연령주의를 대변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FSA척도는 제 3자의 입장에서 노인에게 대해 가지는 감정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척도를 종합적으로 알아봄으로써 노인복지주택 거주민들 뿐 만 아니라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들의 공간형성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2) 노인인구의 주거공간인식과 주거행태

주거공간은 의식주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적 공간으로 대변되는 유동적이고 경합적인 성격을 가지는 장소이다. 때문에 주거공간에는 거주자들의 사회적 관계와 그

4) 연령주의 정의는 반드시 다음의 두 가지 사항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① 연령주의는 사람들 사이의 생물학적 차이에서 기원되어지고 노화과정과 연관되어 있다

② 연령주의는 집단의 행동들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즉, 그들의 대표자들에 의해서 발생되고 평범한 노인들이 초래한 연령주의 관점이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더욱 더 연령주의가 강화 된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의 연령주의는 다음의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한다.

(a) 연령주의는 노화현상에 대한 두려움과 명예훼손을 비롯하여 특정 기능의 손실을 고려하여 유형화된 추측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기존의 인식을 강화 시킨다

(b) 연령주의는 조직적으로 다른 이들이 누리는 기회들과 자원들에 대한 권리를 주지 않는 사람들의 계층을 구분 짓기 위한 잣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Bytheway and Johnson, 1990).

들이 살아가고 있는 당시의 사회가 반영될 뿐 만 아니라 거주자들의 역사적 경험과 가치가 담겨진다 (이상은·최재필, 2002). 그 결과 거주자들은 각기 다른 주거공간인식⁵⁾을 형성하게 된다.

① 노인인구집단의 주거공간인식

앞서, 주거공간은 개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 아주 중요하고 상징적인 자원으로 존재해 오고 있음 (Kontos, 1998, 2004)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주거공간은 이동능력 감소나 만성적인 질병을 겪을 수 있는 노인들이나 사회적·지리적 공간에서 행태 범위가 좁은 사람들에게 점점 중요한 장소로 인식 (O'Brien et al., 2002)된다. 최근 몇몇 연구들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주변 환경의 쾌적성보다는 기존의 가족·이웃·친구들과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그대로 유지하고 촉진시켜 줄 수 있는 주거공간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Rojo-Pérez et al., 2007; Wiles, 2005).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주거공간에서 지속적인 거주가 가능한 노인들을 노화에 따른 기능적 저하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소유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음(Nair, 2005)이 증명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노인인구의 주거행태 특성

노인인구의 주거행태는 개개인의 경제력을 대변하는 청·장년층의 주거행태와는 달리 건강악화와

은퇴 그리고 자녀의 분가와 유 배우자 상태 등의 차별적 요인들을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많은 연구들에 의해 증명되어 오고 있다(진미윤, 1995; 신영숙, 1998; 서은미, 2005; Prezza et al., 2001; Maria Eugenia, 2011 et al.). 한편, 제 3연령기에 해당하는 노인들의 주거이동 행태는 편익이동(Amenity Moves), 조력이동(Assistance Moves), 환경적인 압력(Environmental Push) 등 크게 3가지로 구분 해 볼 수 있다(Wiseman, 1980).

3. 노인공동생활주택의 제도적 특성

노인을 위한 주거공간은 오랜 동안 주거(housing)와 보호(care)의 두 가지 큰 흐름 속에서 발전 해 왔다. 노인주택은 영국의 보호주택(sheltered housing)으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보호주택이 시설화의 반대로 시작된 것만큼이나 시설(institution)과 주택(home)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전개되었다(Higgins, 1989). 노인주택 탈 시설화의 목적은 독립적 생활을 가능케 하고 집과 같은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노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것에 있다. 이러한 형태의 주택은 영국에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노인주택의 전형이 되었다(Heywood, 2002). 이후 유럽 국가들과 다른 서부 국가들에서 노인주택과 관

5) 주거공간인식이란 거주자가 내·외부로부터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여 인출하는 일련의 주거공간에 대한 주관적 지각·지역·상상·개념·판단·추리 등을 생성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6) aging-in-place의 개념적 특성은 다음의 5가지로 정리 해 볼 수 있다.

① 보호(care)기능은 전통적 주거지 내에서 제공되는 것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이는 특정 주택의 노인들을 위해서 공급되어진다.

② 보호기능은 표준화 된 방식이 아닌 개개인 요구에 맞춰져 있고, 노인들의 특정한 욕구들을 모두 맞춰 줄 수 있어야 한다.

③ social service(육체적 운동 활동·레크레이션 활동·교육·상담 등)기능 또한 기존에 있던 시설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해당 커뮤니티 노인들의 요구에만 따로 맞춰져 있다.

④ 주거기능은 더 이상 보호부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다. 아파트 식 거주공간의 규모와 편의시설들이 일반적인 주택시장에서 평균적인 아파트들과 비교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⑤ 주거기능(특히, 욕실과 부엌)은 노인들의 이동성 문제에 맞춰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공간 조정은 특정 노인주택에서 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한 모든 주택시장에서의 주요한 흐름이다 (출처: P.P.J.Houben, 2010).

런한 혁신적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혁신들 뒤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힘은 'aging-in-place'⁶⁾에 대한 노인들의 강한 욕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aging-in-place는 노인들이 이제껏 살아온 친숙한 지역과 주거공간에서 그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바람에 따라서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정책적으로 가족과의 동거를 장려하거나, 노인들을 위한 혁신적인 신규 노인주택 공급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 뚜렷하다(박신영, 2003).

4. 노인복지주택 거주민의 주거행태 분석

1) 인구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들의 연령·성별·학력 등의 기본 인구학적 정보와 주관적 생활수준과 건강상태를 통해 노인복지주택 공간과 커뮤니티의 속성을 예측해 보고자한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기본 인구학적 특성은 [표 IV-1]과 같다.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이 베이비 붐 세대보다 훨씬 이전 세대라 할 수 있는 81~83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이 전문대 졸업 이상이라는 것은 해당 세대에서 평균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집단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주관적 생활수준과 건강상태에 관한 응답 결과를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노인인구집단이 각자의 재력을 기반으로 '노인용 주택' 상품을 소비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제가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연령·성별·학력 등의 기본 인구학적 정보와 주관적 생활수준과 건강상태를 통해 노인복지주택 공간과 커뮤니티의 속성을 예측해 보고자한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기본 인구학적 특성은 [표 IV-1]과 같다. 연

구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이 베이비 붐 세대보다 훨씬 이전 세대라 할 수 있는 81~83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이 전문대 졸업 이상이라는 것은 해당 세대에서 평균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집단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주관적 생활수준과 건강상태에 관한 응답 결과를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노인인구집단이 각자의 재력을 기반으로 '노인용 주택' 상품을 소비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제가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주거이동(residential mobility) 행태

각 노인복지주택 응답자 개인의 주거이동 경로는 [그림 IV-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총 표본 45명 중 약 30% 이상의 응답자들이 '강남구'를 이전 거주지역이라 응답한 것은 앞서 살펴본 인구학적 특성과 일맥상통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응답자들의 주거이동 메커니즘을 탐색한 결과 두 노인복지주택의 응답자들 모두 본인 혹은 배우자의 '은퇴'를 주거이동 촉발 시기와 연관하여 생각하고 있었고, 노인복지주택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구조적 특성들이 이동 시 강한 흡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2012년 서울시복지재단이 서울에 거주하는 55세 이상의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민의 평균 은퇴연령이 52.6세임을 밝혔는데 이를 본 절의 분석결과와 비교할 경우 '은퇴'라는 life event가 주거이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과 동시에 은퇴 이후 평균 10년 정도의 시간적 격차를 두고 노인복지주택으로의 주거이동 여부가 고민해 본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즉, 노인인구집단의 경우 직장을 잃고 퇴직함에 따라서 직장과의 거리 중요성이 낮아지고 높은 주거비용 지불 능력

〈표 IV-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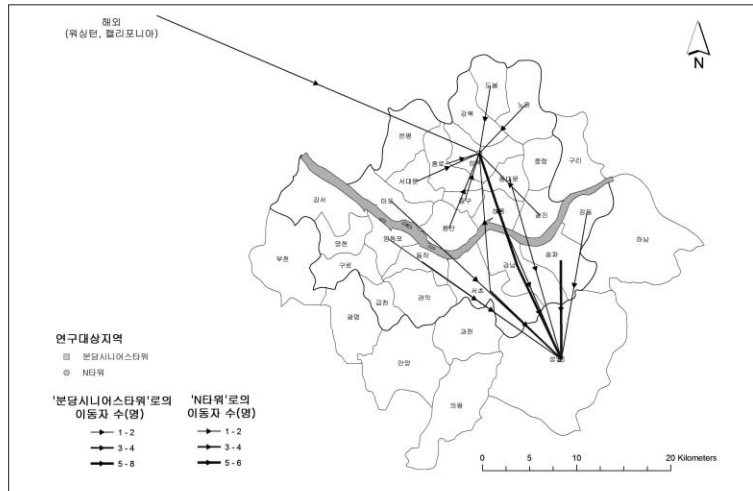
특성	구분	빈도	%
성별	남자	20	44.4
	여자	25	55.6
	합계	45	100
연령	60대	0	0
	70대	17	37.8
	80대	24	53.3
	90대	4	8.9
	합계	45	100
학력	무학	0	0
	초등 졸	0	0
	중등 졸	0	0
	고등 졸	3	6.7
	전문대 졸 이상	42	93.9
	합계	45	100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음	7	15.6
	좋음	19	42.2
	보통	17	37.8
	나쁨	2	4.4
	매우 나쁨	0	0
	합계	45	100
주관적 생활수준	상층	11	24.4
	중상층	17	37.8
	중층	17	37.8
	중하층	0	0
	하층	0	0
	합계	45	100

하락 등에 따라서 주거이동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반면, 미래의 주거이동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서는 두 노인복지주택 집단에서 상반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의 입지' 차이로 인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기본 인구학적 정보를 토대로 모든 응답자들의 이전 주거 지역은

도심 기능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지역들이었으나, 분당타워의 경우 N 타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도심에 대한 접근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해 줄 만한 편의 시설과 기관의 거리 또한 상당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때문에 분당 타워의 입지적 특성이 몇몇 거주민들에게 생활환경에 대한 지배력과 조정감 제한⁷⁾으로 작용

연령주의 관점에 근거한 노인복지주택 거주민의 주거공간인식



(그림 IV-1) 연구 대상자들의 주거지역 이동

〈표 IV-2〉 연구지역의 주거이동 과정 비교

구분		N 타워(빈도,%)	분당 타워(빈도, %)
입주 평균연령		78.9(세)	76.8(세)
입주 시기	은퇴 이후	12(57.1%)	17(70.8%)
	자녀 분가 후	2(9.5%)	1(4.2%)
	의료적 도움이 필요 할 때	3(14.3%)	2(8.3%)
	배우자 사망 후	3(14.3%)	4(16.7%)
	외로울 때	1(4.8%)	0
	기타	0	0
	합계	21(100%)	24(100%)
이주요인	자녀의 권유	1(4.8%)	3(12.5%)
	주택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	11(52.4%)	6(25%)
	가족구성원의 변화	0	2(8.3%)
	유사 연령 간 커뮤니티	2(9.5%)	1(4.2%)
	노화불안으로 부터의 보호	3(14.3%)	12(50%)
	주변 환경이 노인에게 적합	4(19%)	0
	기타	0	0
합계	21(100%)	24(100%)	
이주계획	예	3(14.3%)	3(12.5%)
	아니오	18(85.7%)	16(66.7%)
	잘 모르겠음	0	5(20.8%)
	합계	21(100%)	24(100%)

〈표 IV-3〉 연구지역 별 이동계획 영향 요인

구분		N 타워(빈도,%)	분당 타워(빈도, %)
이동 계획(긍정)	임대 계약 만료	0	0
	한적한 전원생활/도시기반시설이용	0	2(8.3%)
	시설환경 불만족	0	0
	비싼 관리비용	0	0
	사라지지 않는 고독감(감정적 측면)	2(9.5%)	1(4.2%)
	기타	1(4.8%)	0
이동 계획(부정)	위치적 이점	2(9.5%)	0
	주택 이미지 만족	0	2(8.3%)
	제공되는 서비스 만족	11(52.4%)	13(54.2%)
	형성된 커뮤니티 유지	0	1(4.2%)
	자녀들의 요구	1(4.8%)	2(8.3%)
	기타	3(14.3%)	0
합계		21(100%)	19(79.2%)

하여 노인들에게 더 큰 고립감과 우울증과 무력감을 안겨줄 가능성을 제시 할 수 있다. (표 IV-3참고)

3) 주거행태(residential behavior) 변화

본 절에서는 거주민들의 주거소비 기준과 생활행태 변화와 같은 주거행태 변화를 탐색함으로써, 사회활동 영역이 축소 된 노인들에게 노인복지주택으로의 물리적 공간 변화가 그들의 일상과 주거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① 주거소비 행태 변화

각 노인복지주택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주거 이동 결정 과정에서 주거소비 기준 변화를 살펴 본 결과 다음의 [그림 IV-2]와 [그림 IV-3]과 같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 주거소비 기준에서 응답자들에게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였던 ‘경제적 여건’이 ‘편의시설의 다양성’이나 ‘건강’ 등의 요인에 우선순위를 내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노화로 인한 기능저하를 경험하는 노인집단이 주거공간으로부터 특정 부분을 보강하고자하는 욕구가 작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주지 이동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이 ‘주택가

7) 노인들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 우울증이나 무력감, 신체적 쇠약은 자립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물리적 환경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정서적·인식적·의식적인 반응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조정 해 볼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즉, 노인들의 생활에 대한 자부심(self-esteem)은 약 57%가 환경적 요소에 의해 부여되곤 한다(원용희, 2009).

8) 2008년 국토해양부의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6명 중 1명은 매년 거주지 이동을 하며, 이동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주택가격’, ‘주택규모’, ‘주택유형’, ‘교통여건’, ‘주택내부시설’ 순으로 나타났다(한국의 사회동향, 2010,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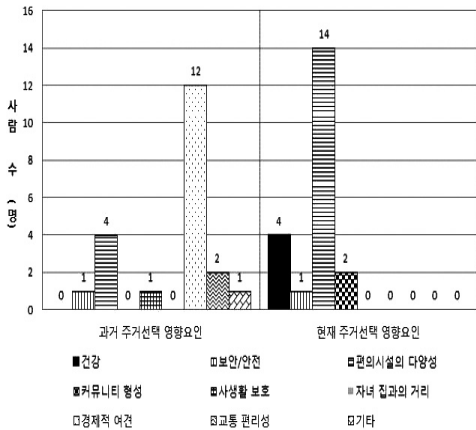
격⁸⁾이라는 당연한 결과와도 상반됨으로써 노인복지주택 연구 대상자들의 특수한 이동요인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② 주거생활 행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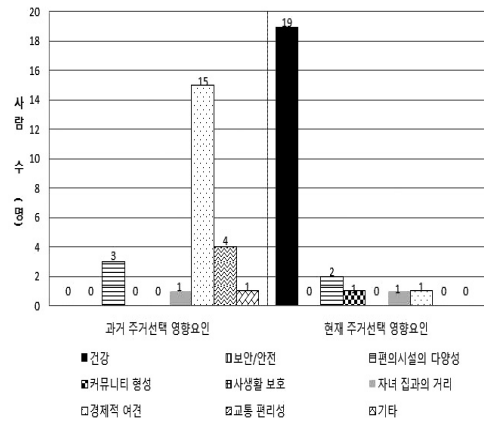
앞서 드러난 노령에 따른 사회활동 영역 감소와 신체적 기능 저하를 노인복지주택이라는 특수한 주거공간으로부터 보충하고자 하는 응답자들의 견해를 주거생활 행태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거주민들의 주거생활 행태적 특성은 '주거

단지 내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의 변화', '외출의 횟수와 목적', '외출 시 이동 수단' 등을 통해 도출하였다.

먼저 노인복지주택으로의 주거이동 이전에는 약 82.2%의 응답자들이 주거 단지 내에서 '개인 활동(TV/독서)'를 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현재 노인복지주택에서는 44.4%가 '운영프로그램 참여'를 선택하였다. 즉, 노인을 위한 주거공간 환경의 구성방식이 노인들의 일상생활 활동영역을 주거 단지 내로 확장하는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은퇴와



(그림 IV-2) 주거소비 기준 변화(N 타워)



(그림 IV-3) 주거소비 기준 변화(분당 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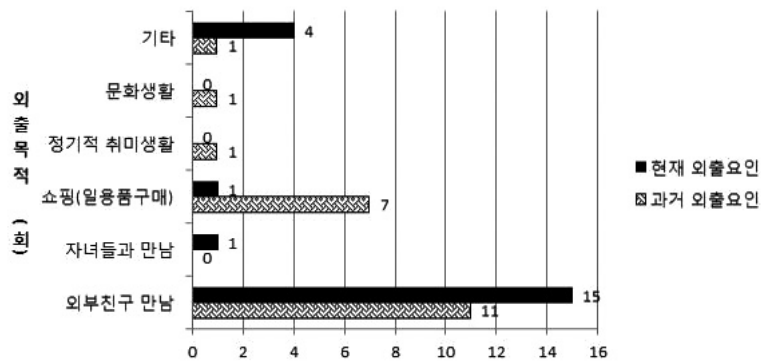
<표 IV-4> 주거단지 내 활동 변화

주거단지 내 많이 하는 활동		N 타워		분당 타워	
		과거(빈도/%)	현재(빈도/%)	과거(빈도/%)	현재(빈도/%)
활동 유형	이웃들과 담소나누기	0	3	1	6(25%)
	개인 활동 (TV/독서 등)	18(85.7%)	6(28.6%)	19(79.2%)	2(8.3%)
	운동	2(9.5%)	4(19%)	4(16.7%)	4(16.7%)
	운영 프로그램 참여	0	8(38%)	0	12(50%)
	기타	1(4.8%)	0	0	0
합계		21(100%)	21(100%)	24(100%)	24(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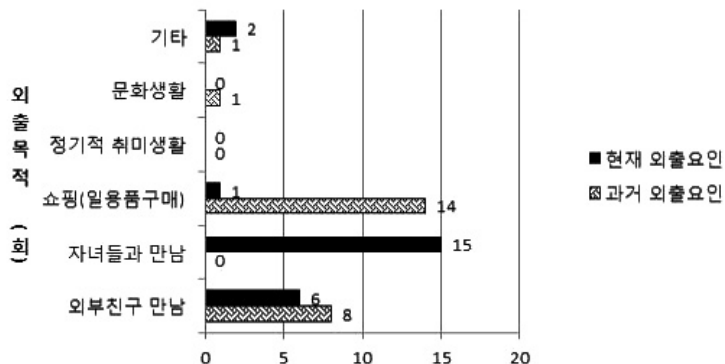
노화에 따른 주거소비 기준의 변화와 주거생활 행태 변화의 상관성 또한 드러났다. (표 IV-4 참고)

두 번째로 외출목적과 그 이동수단에 대하여서는 두 집단 사이에 크게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N 타워와 분당타워의 거주민들 모두 대부분 주거공간의 구조적 변화와 신체적 기능저하에 따라서 감소된 외출 횟수를 나타냈다. 하지만 N 타워의 거주민들은 '외부 친구들과의 만남'을 위해 주로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분당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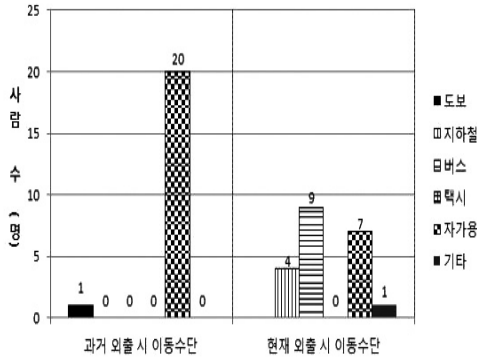
의 거주민들의 경우 주로 '자녀들과의 만남'을 위해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그림 IV-4,5,6,7 참고) 특히 외출 시 이동수단의 결과는 두 노인복지주택의 입지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N 타워가 위치한 곳은 지하철을 비롯한 8개의 간선버스와 6개의 지선버스 노선들이 도보 10분 거리 내에 분포하고 있어 분당타워에 비하여 상당히 교통편의 시설이 좋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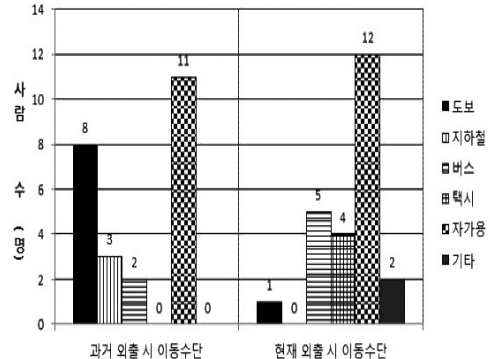
(그림 IV-3) 외출 목적 변화(N 타워)



(그림 IV-4) 외출 목적 변화(분당 타워)



(그림 IV-6) 외출 시 이동수단 변화(N 타워)



(그림 IV-7) 외출 시 이동수단 변화(분당 타워)

5. 노인복지주택 거주민의 주거공간 인식

본 장에서는 앞선 4장에서 N타워와 분당타워 거주민들의 전반적인 주거이동 과정과 생활행태 특성을 바탕으로 주거이동 과정 이동이후의 배타적 연령주의의 영향과 인지정도를 탐색 해 봄으로써 거주민의 주거공간인식에 미친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규명 해 보고자 하였다. 추상적이고 복잡, 다양하게 존재하는 노인인구집단에 대한 배타적 연령주의(ageism against the aged)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Q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Q 방법론을 적용한 Q 연구 조사 절차와 거주민들의 주거공간 인식도출 과정은 다음의 [표 V-1]과 같다.

1) 연령주의 관점의 주거공간인식 유형 구분

두 노인복지주택의 거주민 45명의 피험자들의 Q 표본 분류 결과 자료들을 PQ method 2.1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Q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피험자들의 주거공간에 대한 인식은 약 60%의 설명

력을 나타내는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P-sample들은 flagging(X표시)처리 되어 도출되었다. 45명의 피험자들은 1유형에 14명, 2유형이 11명, 3유형이 5명 그리고 4유형에 13명이 포함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주관적 주거공간인식 도출을 위해서 Q 분석을 적용 한 연구인 만큼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인식 유형에 몇 명이 해당하느냐 보다는 인식의 유형 구분이 어떤 Q 표본들로 구분되는지에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 결과 도출 된 네 가지 주거공간인식 유형의 구분은 시점을 기준으로 '주거이동 과정' 과 '주거이동 결과' 에 연령주의가 영향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졌고, 다음의 [표 V-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유일하게 제 1유형은 주거이동 과정과 주거이동 결과 모두 연령주의와 무관한 유형으로 도출되었고, 피험자의 약 68%에 해당하는 이외의 유형들은 모두 주거이동 이전 혹은 이후에 배타적 연령주의의 인식의 변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V-1〉 Q연구 조사 진행 절차 및 내용

[Q연구 조사 절차]

① Q 모집단 표집	- 문헌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노인복지주택과 연령주의에 관한 인식유형 진술문 123개 수집
② Q 표본 선정	- 노인복지주택 거주민 3명을 대상으로 문항 예비조사 실시 - 노인복지주택 관련 종사자와 연령주의 연구자에 의한 검증 - 수집된 문항을 중위범주 4개, 하위범주 46개로 분류
③ P-sampling	- 연구 기준에 의해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 선정 후, 거주민 대상으로 총 45명 분석
④ Q-sorting	- 정규분포에 따른 46개의 진술문을 제시하고, 연구 대상자들의 의견 중요도에 따라 분류 - 피험자들의 양극단에 위치한 진술문을 통해 의견 파악
⑤ 자료처리 및 분석	- PQ Method 프로그램에 맞는 data file 작성 - Q 유형분석을 통한 거주민 주거공간 인식유형 도출 - 각 인식유형별 특성은 해당 유형의 표준점수(z-score)가 ±1 이상인 양극단 진술문을 종합하여 분석

[주거공간인식 유형 도출 과정]

1) QENTER	- 연구 대상자들의 Q소트 자료를 PQ Method 프로그램에 입력
2) QPCA	- 주요인분석(PCA) 방법으로 요인분석 실시 :일반적으로 센트로이드(QCENT)방법으로 요인분석 시, 판단적 회전(QROTATE)을 실행하고, 주 요인분석(QPCA) 방법으로 요인분석 시, 비 이론적 회전(QVARIMAX)를 실행 한다 (김홍규, 2008).
3) QVARIMAX	- Varimax 방법으로 요인을 회전 :요인 수는 고유 값이 1 이상이면서, 총 분산의 50-60% 정도를 설명하는 요인까지 선정 한다 → 변수들을 축약하고 잠재적 요인 추출을 위해, 고유값의 크기나 뚜렷이 설명력이 높은 요인들만을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홍규, 2008).

〈표 V-2〉 노인복지주택 거주민의 주거공간인식 유형 구분

주거이동 이후	주거이동 이전	연령주의와 상관된 영향요인	연령주의와 별개의 영향요인
연령주의와 상관된 주거공간인식		연령주의를 지속시키는 공간(3 유형)	연령주의를 유발하는 공간(4 유형)
연령주의와 별개의 주거공간인식		연령주의로부터 분리된 공간(2 유형)	노화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공간 (1유형)

2) 노인복지주택 주거공간에 대한 유형별 인식 해석

① 제 1유형: '노화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공간'

제 1 유형으로 추출된 인원은 총 14명으로 그 중 분당타워 거주민이 약 80%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성별은 여성이 10명 남성이 4명으로 여성의 비중이 높게 구성되어 있었다. 이 집단은 현재의 주거공간을 '노화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한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화(老化)가 진행됨에 따라서 노인들은 기존의 인간관계와 익숙한 환경의 변화를 통한 단절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Valentine, 2009), 많은 노인주거 관련 연구들은 노인들의 지역·주거 애착심을 강조해 오고 있다. 1 유형의 사람들 또한 [표 V-3]의 12·18번 진술문에 대하여 '적극 동의'하는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노화와 환경변화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환경변화로 인한 심리적 위축감을 감수하고 신체적 기능 저하에 대한 우려와 노화로 인한 두려움을 노인복지주택으로 주거이동을 감행함으로써 스스로 조절해 나가려는 집단임을 [표 V-3]의 12·25·7·42번 진술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즉, 이 집단에게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공간은 연령증가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능력 퇴화현상을 자가 조절(self-control)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인식되어지고 있었다. 반면, 주거공간을 사회·경제적 지위 혹은 개성표현의 수단으로써 인식하는 진술문들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한정된 연령이 밀집한 공간적 특성이 노년기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1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노화에 대한 불안감을 스스로 조절하기 위한 장소로써 노

인복지주택으로의 주거이동을 이룬 집단이기 때문에 조력이동(Assistance Move)의 주거이동 행태를 보인 집단이라 할 수 있고, 그 결과 노인복지주택의 공간적 성격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조절로 규명할 수 있다. ([표 V-3]의 42번 진술문) 참고)

“우리가 아프면 누가 오냐고, 가까이 있지도 않지만 아무리 가까이 있다고 해서 자식들이 의사야? 아니니까. 걱정이 되지 아무래도. 근데 여기는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까 안심이 되지. 그냥 아프지 않고 저 세상 가는 게 원이라고…… (축약) 지난 달에도 3명이 죽어나가는 걸 봤거든, 알지는 못해. 많이들 살거든 여기, 알지는 못해도 같이 사는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불안하지는 않아도 두려움은 더 큰 게 내 앞날도 저렇겠구나 싶지.”

- 분당 타워 거주민, 김 OO, 男, 84 세 -

“아픈거 무서워서 여기서 살지. 심심한거는 매한가지거든. 다 늙으면 재미가 없지. 여기 간다고 하니깐 다 부러워하는데, 똑같아. 우리가 뭐 돈을 쌓아놓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할머니들끼리 있고, 밥 주고, 몸 챙겨주고 그러니까 편한거지 부러워 할 것도 없어. 뭐 전에도 관리비내고 그런건 다 똑같다고. 어차피 한 달 돈 나가는 건 같다고. 아가씨는 여기 살고 싶어? 재미없지 뭐~.”

- 분당 타워 거주민, 한 OO, 女, 79세 -

② 제 2유형: '연령주의로부터 분리된 공간'

제 2 유형으로 추출된 인원은 총 11명을 포함하고, 분당타워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높았던 1 유형과 정반대로 모두 N타워의 거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유형에 노인들은 주거공간을 우리

〈표 V-3〉 1유형의 특성을 나타내는 Q 진술문

적극 찬성 Q진술문	Q 값	Z 값
12. 나는 나이로 인한 건강에 대한 우려로 현재의 집으로 이사를 결정했다	4	1.78
25. 나는 이사 후, 노화로 인한 불안감이 줄어들었다	4	1.65
7. 나는 전에 살던 동네의 주변 편의 시설이 나이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다	4	1.58
15. 나는 나이가 들수록 보건·레저·일상소비·가사노동 서비스 등 복합기능이 제공되는 주거가 필요 하다고 생각 한다	3	1.36
18. 나는 나이 든 사람일수록 지역/주택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이사가 쉽지 않다고 생각 한다	3	1.24
21. 나는 이 집에 살기 때문에 외부 노인들보다 더 건강하고 젊은 노인으로 본다	3	1.17
42. 나에게 현재 집은 건강을 지켜주는 공간이다	3	1.14

적극 반대 Q 진술문	Q 값	Z 값
27. 나의 현재 집은 노화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었다	-4	-1.85
43. 나에게 현재 집은 나의 부유함을 나타내는 공간이다	-4	-1.79
39. 나는 현재 주거공간이 나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4	-1.75
14. 나는 나이가 들수록, 경상지출이 높아도 내 몸이 편안한 것을 선호 한다.	-3	-1.52
41. 나에게 현재 집은 외로움을 달래주는 공간이다	-3	-1.43
13. 나는 이사를 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졌었다	-3	-1.21
45. 나에게 현재 집은 노인들의 사회적·경제적 계층을 구분 해 주는 공간이다	-3	-1.13

사회에 존재하는 노인들에 대한 배타적 연령주의로부터 분리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근거는 2 유형의 양극단의 진술문을 통해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은 배타적 연령주의(against for the aged)를 경험하지 않았음을 매우 강조함으로써 노인인구집단 내에서 자발적 차별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현재 유사한 수준의 가치관과 생활수준 영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노인복지주택 내에서 혼합연령(mix-age) 활동에 대하여서도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공간에서 배타적 연령주의로 인한 불편함을 애초에 거부하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2 유형에 해당되는 노인들은 표면적으로는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편의이동(Amenity Move)’ 을 경험한 집단에 해당하지만, 주거공간 변화의 근본적 원인은 자신과 연령·자산·사고관 등이 다른 외부인들과는 배타성을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강한 결속력을 다짐으로써 배타적 연령주의로부터 분리되고자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노인복지주택 주거공간은 일정부분 ‘폐쇄적 공동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에 충분한 주거공간이 되기도 한다. (표 V-4의 2·5·6·10·31번 진술문 참고)

“워싱턴에서 여기로 이사 온 이유 단 한 가지. 사업 딱 접고, 우리 사모님 손에 물 안 묻히게 하려고.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 밥, 부엌 일 딱 하기 싫

연령주의 관점에 근거한 노인복지주택 거주민의 주거공간인식

어하거든? 근데,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집에 있고, 집에 있으면 뭐해? 밥 먹어야 하잖아? 그래서 여기에 왔죠. 우리 사모님은 여기 와서 밥 안하고, 친구들 만들고 다 비슷하거든? 미국 있을 때는 늘 외롭다고... 나 홀롭하지? 나는 여기 와서 버스 한 번이면 종로에 중국어 학원 다닌다고, 얼마나 좋아? 천국이 지 뭐.....”

- N 타워 거주민, 男, 78세 -

“여기는 연금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나, 재산이 많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나도 교육부에서 장

관까지는 아닌데, 높은 자리에 몇 년 있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연금을 꽤 받아. 아니면 이 집에서 유지가 안 되지. 나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여기 참 대단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축약) 아무래도 다 비슷비슷하니까, 서로 챙겨주려고 노력하지. 여기 있다고 전혀 안 외롭고, 안 쓸쓸하고 그렇겠어? 나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럼 뭐해? 서로서로 다독여주면서 재밌게 사는 거지. 이런데서 여행도 가고, 노래자랑 하면 거기도 나가고, 내가 저번 대회에는 우승했다고.....”

- N 타워 거주민, 男, 81세 -

〈표 V-4〉 2유형의 특성을 나타내는 Q 진술문

적극 찬성 Q진술문	Q 값	Z 값
15. 나는 나이가 들수록 보건·레저·일상소비·가사노동 서비스 등 복합 기능이 제공되는 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4	2.116
32. 나는 노인들을 위한 일상생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주거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4	1.877
38. 나는 노인들의 주거 선택은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삶의 질에 맞춰진다고 생각 한다	4	1.526
14. 나는 나이가 들수록, 경상지출이 높아도 내 몸이 편안한 것을 선호한다.	3	1.381
42. 나에게 현재 집은 건강을 지켜주는 공간이다	3	1.254
1. 나는 전에 살던 곳에서 노화에 대한 불안이 컸었다	3	1.203
10. 나는 나이 든 사람일수록 생활수준과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생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한다	3	1.134

적극 반대 Q 진술문	Q 값	Z 값
11. 나는 나이 든 사람일수록 전원(시골)생활이 좋은 것이라 생각 한다	-4	-1.663
4. 내가 전에 살던 곳은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좋지 못했다	-4	-1.612
2. 나는 전에 살던 곳에서 늙었다고 사람들이 무시당할까봐 걱정 이었다	-4	-1.506
5. 나는 전에 살던 곳에서 늙었다고 주민활동(지역 활동)에서 배제당한 적이 있다	-3	-1.403
31. 나는 현재 주거단지에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3	-1.358
40. 나에게 현재 집은 자아실현의 공간이다	-3	-1.338
16. 나는 이사하는데 늙었다는 이유로 내가하는 말이나 행동을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	-3	-1.224

③ 제 3유형: ‘연령주의를 지속시키는 공간’

제 3 유형으로 추출 된 인원은 총 7명을 포함하고, N 타워와 분당타워 거주민들이 고루 분포하고 있다. 응답자의 기본정보에서 앞선 유형들과 차별화된 점은 N 타워 거주민들 가운데 미래의 이주계획을 가지고 있는 피험자의 존재라 할 수 있다. 이주계획에 대한 영향요인은 ‘만족스럽지 못한 커뮤니티’(1人)와 ‘사라지지 않는 고독감(감정적 측면)’(2人) 등이었다.

3 유형에 해당하는 피험자들은 주거공간을 ‘연령주의를 지속시키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집단으로 명명할 수 있다. 이들은 자발적 주거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주거공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집단이었다. 이들의 부정적 주거공간인식 형성의 이유는 노인복지주택으로의 주거이동이 노인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촉발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주거공간을 ‘연령주의를 지속시키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노인들은 노화에 따른 자신의 신체적 기능저하 보다는 노화로 인해 지역 활동에서 배제당하고 통념적으로 내려오는 노인들에 대한 편견에 의해 주민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등의 배타적 연령주의에 의해 주거이동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V-5의 5·6·13번 Q진술문 참고) 즉, 과거 주거공간에서 경험한 배타적 연령주의에 의해 형성된 주거공간에 대한 공간감이 현재 주거공간을 ‘연령주의를 지속시키는 공간’으로써 인식하게끔 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표 V-5〉 3유형의 특성을 나타내는 Q 진술문

적극 찬성 Q진술문	Q 값	Z 값
5. 나는 전에 살던 곳에서 늙었다고 주민활동(지역 활동)에서 배제당한 적이 있다	4	2.32
6. 나는 전에 살던 곳에서 나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4	2.19
8. 나는 전에 살던 곳에서 아무도 찾는 이가 없어 매우 쓸쓸했다	4	1.61
26. 나는 이사 후, 노인집단 내에서 소외감을 느낀 적이 있다	3	1.47
44. 나에게 현재 집은 친구들을 만들어준 공간이다	3	1.31
7. 나는 전에 살던 동네의 주변 편의 시설이 나이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다	3	1.06
13. 나는 이사를 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가졌었다	3	1.03

적극 반대 Q 진술문	Q 값	Z 값
11. 나는 나이 든 사람일수록 전원(시골)생활이 좋은 것이라 생각 한다	-4	-1.93
22. 나는 이사 후, 젊은이들과의 소통이 줄어들 안타깝다	-4	-1.56
39. 나는 현재 주거공간이 나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4	-1.52
31. 나는 현재 주거단지에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3	-1.48
25. 나는 이사 후, 노화로 인한 불안감이 줄어들었다	-3	-1.24
24. 나는 이사 후, 늙었다고 무시 하듯한 대우를 덜 받는다	-3	-1.06
33. 나는 노인들의 경우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 한다	-3	-1.02

있다. 결과적으로 제 3유형에 해당하는 노인들의 주거공간인식에는 지리적 공간 변화의 영향력보다는 경험에 의해 설정된 기존의 선입견(stereotype image)이 더 강하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④ 제 4유형: ‘연령주의를 유발하는 공간’

제 4 유형으로 추출된 인원은 총 13명을 포함하고, 분당타워 거주민들의 약 77%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가운데 3명의 응답자들 또한 미래의 주거이동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안정성의 요인으로 ‘한적한 전원생활/도시기반시설 이용’(1인)과 ‘사라지지 않는 고독감(감정적 측면)’(2인) 등을 꼽았고, 이들이 모두 분당타워의 거주민이라는 것은 모두 N 타워 거주민이 주거이동 계획을 가지고 있던 3 유형과 상반된 결과이다.

제 4유형에 해당하는 피험자들은 ‘도심’이라는 지리적 공간이 상대적으로 높은 활동력을 지니는 젊은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보아, 젊음과 노화에 대한 신체·심리적 격차를 인정하는 동시에(표 V-6의 35번 진술문 참고), 노인들의 경우 주거소비 기준이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삶의 질 향상에 맞춰진다고 생각하는 집단이다. 더욱이 이들이 생각하는 삶의 질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주거공간 내에서는 물론 노인전용으로 연령이 제한된 시설보다는 혼합연령(mix-age) 시설 및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표 V-6의 22·31·30·37·10번 진술문 참고)

하지만 현재 한정된 연령집단만이 거주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소외된

주거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강한 집단으로 나타난 것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된다. (표 V-6의 46번 진술문 참고) 그림에도 불구하고, 13명 중 3명의 소수만이 미래에 주거이동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통하여 4 유형 응답자들은 매우 낮은 주관적 삶의 질을 영위해 갈 나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심층인터뷰는 노인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이 무시된 주거이동에 따라 형성된 부정적인 주거공간인식이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나는 전에 살던 데가 캘리포니아야. 할머니 먼저 가고, 일 좀 더 하다가 왔지. 아주 막바로 여기로 온 건 아니고 잠깐 아들집(신당동)에 있었는데, 불편 하더라고. 사실 나야 좋지. 계속 타지에 있고, 그랬 으니까. 근데 서로한테 안 좋다고. 근데 뭐 이런 데 가 있다길래...(축약) 나는 여기서 주는 밥 안 먹어. 줄 서서 먹는 게 싫거든. 내가 팔, 다리 멀쩡한데 병 신도 아니고, 몰라 ~ 나중에 나도 어디 아파서 그러면 쪽- 줄서서 먹는데 가서 서 있을지? 근데 그냥 싫더라고, 또 나는 소세지, 스파게티 이런 거 좋아해. 해장도 이렇게 좋은데 뭘... 커피도 아메리카 노가 좋고.. 여기 이마트가 가깝거든, 그러니까 가서 장 봐 와서 먹고 싶을 때 먹는 거지. 늙었다고 밥 시간되면 다 배고프고 그런 건 아니잖아? 뭐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어, 이제 일도 안 해서 여유롭게 살고 싶은데, 왜 시간마다 뭘 해야 해? 안 그래? (축약) 심심하지..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또 이런 게 있다고 여기가. 나같이 할아버지 혼잔데, 뭐 할머니들이랑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 거기 할아버지가 싫어하고, 할머니들이 말이 너무 많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혼자 잘 돌아다니는 게 상책이야. 아니면 여기에 할아버지들 바둑 두러 내려오면, 가끔 두고 그러지. 나는 여기서 가는 여행 같은 것도

잘 안가. 우리가 다 늙었다고, 효도 관광 같은 거 알지? 그런 여행만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 그런 거 할머니들이 아주 환장하지... 여기 생활이 이래~.”

-N 타워 거주민, 男, 82세-

따라서 4 유형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노인복지주택으로 주거공간 변화가 오히려 이전에는 경험하지 않았던 연령주의로 인한 우려와 번민의 심경이 일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V-6의 24·2번 진술문 참고) 노인복지주택과 같이 주거공간에 보호의 기능이 침투한 경우 보호 서비스 수혜자들에게 체화된 주관성과 활동은 방해받게 되고, 일정부분 규칙적 활동을 요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Ruddick, 1995; Tamm, 1999). 이처럼 이

들 집단에게도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하는 하루 식사 제공·홈 케어 서비스·세탁 서비스·운영 프로그램 등과 같은 복합적 서비스는 새로운 일상 규범으로 작용함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즉, 그저 신체적·심리적 기능저하를 겪고 있는 노인이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제시하고 있는 시간표에 대한 준수를 권장하는 노인복지주택의 공간성과 물리적 환경에 대한 자립적인 지배권을 침해당한 노인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노인복지주택은 제 4 유형의 노인들에 의해 연령주의를 생성해내는 공간성을 부여받았다. 주거공간에 대한 노인들의 이러한 인식은 주거이동 행위가 자발적이지 못했을 경우 더 높은 발생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표 V-6〉 4유형의 특성을 나타내는 Q 진술문

적극 찬성 Q진술문	Q 값	Z 값
38. 나는 노인들의 주거 선택은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삶의 질에 맞춰진다고 생각 한다	4	2.19
46. 나에게 현재 집은 젊은이들과 분리된 소외된 공간이다	4	1.84
35. 나는 복잡한 도심은 젊은이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 한다	4	1.42
22. 나는 이사 후, 젊은이들과의 소통이 줄어들어 안타깝다	3	1.35
7. 나는 전에 살던 동네의 주변 편의 시설이 나이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다	3	1.24
23. 나는 이사 후, 사회 활동영역이 줄어들었다	3	1.03
31. 나는 현재 주거단지에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3	1.02

적극 반대 Q 진술문	Q 값	Z 값
21. 나는 이 집에 살기 때문에 외부 노인들보다 더 건강하고 젊은 노인으로 본다	-4	-1.98
4. 내가 전에 살던 곳은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좋지 못했다	-4	-1.83
30. 나는 노인전용 문화·레저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3	-1.72
37. 나는 노인들의 경우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한 인맥이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3	-1.33
10. 나는 나이 든 사람일수록 생활수준과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생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한다	-3	-1.21
24. 나는 이사 후, 늙었다고 무시 하듯한 대우를 덜 받는다	-3	-1.17
2. 나는 전에 살던 곳에서 늙었다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봐 걱정이었다	-3	-1.08

6. 결론 및 요약

Rich(1986)는 신체(body)를 '가장 가까운 지리적 공간'으로 묘사하였는데, 연구 결과 필연적으로 모든 노인들은 '신체⁹⁾(身體)화 된 주거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노화에 따른 가장 1차적인 지리적 공간의 손상을 인간의 기본 욕구 충족 공간인 주거로부터 보상받고자 주거이동을 통해 주거공간을 바꾸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노인복지주택과 같은 '신체화 된 주거공간'을 점유할 수 있는 노인들은 극히 일부에 해당하고, 이러한 주거이동이 노인문제의 돌파구 역할을 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주택으로의 주거공간 변화 과정에서의 사회적 환경의 영향 정도를 탐색함으로써 고소득·고학력 노인인구집단이 가지고 있는 주거공간인식을 유형 별로 도출하였다. 그 결과, 노인들의 경우 유사한 수준의 연령과 사회·경제적 지위 및 주거공간을 가진 집단이더라도 개인별로 주거공간 변화과정에서의 경험이나 가치관 및 주거이동 결정자 등에 따라서 주거공간 인식에 매우 큰 격차가 존재할 수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더욱이 노인복지주택 거주민들을 단순히 'active adult' 혹은 'active senior community'로 보는 보편적인 시각(Golant, 1982; Kevin & Elizabeth 2005 et. al.)을 넘어서 거주민들의 전반적인 공간 변화 과정에 연령주의 관점을 적용하여 그들의 심리·인지적 변화를 심층적으로 살펴봄

으로써 주거공간과의 다양한 상관성을 유형으로 도출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분석 결과 연구 대상자들은 신체적 기능 보상 측면을 넘어서 심리적·인지적 측면의 요인들에 따른 주거공간 인식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출된 주거공간에 대한 인식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해석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노인복지주택으로의 주거공간 변화를 통해 노화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기능저하에 대한 보좌와 개인적 라이프스타일을 고수하고자 하는 제 1·2 유형 노인들의 주거공간인식이다. 즉, 이들은 주거공간의 물리적 구조를 노화에 따라서 진행될 행태적 변화들에 대하여 노인들 스스로 조절하고 예방 및 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으로써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주거공간인식 체계의 확립과정에는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입지와 시설,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적·경제적 위치를 가진 집단에게만 열려있는 접근성과 같은 노인복지주택의 공간적 특성의 영향이 크게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주거공간과 노인들의 심리적 상관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난 제 3·4 유형 노인들의 주거공간인식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주거공간 변화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환경의 영향 즉, 본 연구에서는 배타적 연령주의의 영향력이 상당히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노인복지주택이라는 동일한 주거공간이지만 제 3 유형의 노인들에게는 배타적 연령주의로 인한 소외감은 연속시키는 성격을 가지고,

9)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신체화 된 주거공간은 두 가지 의미로 가진다. 첫 번째는 '신체'의 의미 그대로 육체적 기능을 보조해 주는 공간이고, 두 번째는 '신체'를 자아와 타자의 경계를 정하는 개인적인 '공간'(Valentine, 박경환(역), 2009)으로 간주하여 다른 이들과 구분하고 차별화된 주거 공간을 뜻한다.

제 4 유형의 노인들에게는 노인들로만 한정된 거주민 구성과 규범적인 시·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소외감과 자립심을 상실하게 만드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본 연구를 통하여 노인인구집단 내 평균 이상의 소득과 학력을 가진 노인들을 대변하는 노인복지주택 거주민들의 주거이동 메커니즘에 미친 연령주의의 영향을 입증 할 수 있었고, 개인의 주거이동 촉발요인과 가치관에 따라 주거공간에 연령주의에 대한 인식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빠른 고령화 속도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노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 노인 자체에 대한 관심 보다는 노인들을 타깃으로 한 산업 등에 관심과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노인용 주택들의 시설이나 설비의 개발·수요예측·제도개선 등을 다룬 연구들은 포화상태인 반면, 노인복지주택의 입지문제나 거주민들의 이동과정과 이용행태 및 공간성 등과 관련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본 연구는 참여한 노인복지주택 거주민이 소수였기 때문에 모든 노인복지주택 거주자들의 주거공간인식이 분석 결과의 유형들로 귀결될 수는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본 연구는 증가하는 노인들을 위한 주택 정책의 일환으로써 공급되는 노인복지주택 정책에 경종을 울리는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주거공간을 비롯한 노인들을 위한 공간 환경 구성 시 노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간인식에 대한 심층적 탐색 부재는 정작 노인들을 더욱 고립시키거나 차별을 유발하는 공간을 형성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증가하는 노인인구집단의 공간인식에 대한 이해가 시설 공급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부성, 1998, 노인문제에 대한 지리학적 고찰, 지리학회, 제 31호, p.17-34
- 김순은, 1999, Q 방법론의 이론적 배경과 비판적 고찰,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 9호(2)
- 김 욱, 2003, 노인차별의 실태 및 관련요인에 관한 탐색적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Vol.23(2)
- 박신영·최은희, 2003, “실비노인복지주택의 공급제도 개선방안”,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소
- 신영숙, 1998, “중년층이 선호하는 미래 노인주거 환경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36권 2호, 105-120
- 이상은·최재필, 2002,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조선시대 안동지역 상류주택 공간 배치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 18
- 전경숙, 2003, 노년기 생활기능 감소와 주거이동에 관한 연구: 미국의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Vol. 14(5)
- 전영진, 2008, 실버타운 예비 수요자의 입주의향 결정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부동산·도시연구 제 1권 1호, p.75-91
- 진미윤·이현, 1995, “노인가구의 주거소비행태에 따른 노인주택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3(1)
- 홍형욱·서은미, 2005, “노인공동생활주택의 개발자 유형에 따른 개발과 관리 특성 선호 경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23권(6)

2. 국외문헌

- Bytheway, B., 2000, Youthfulness and agelessness: a comment, Ageing and Society 20, 781-789.
- _____, 2005, Ageism and Age Categoriz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61(2), 361-374

연령주의 관점에 근거한 노인복지주택 거주민의 주거공간인식

- Bytheway, B., Johnson, J., 1990, On Defining Ageism, SAGE.
- Brown L. A., Moore E. G., 1970, The Intra-Urban Migration Process: A Perspective,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Vol. 52(1), 1-13
- Burgun, J. A., 1983, Integrated Housing for the Elderly, *Journal of Public Health Policy*, 4(1), 64-68
- Butler, R., 1987, Ageism, *The Encyclopdia of Aging*, New York: Springer, 22-23
- Gale, C. R., Dennison, E. M., Cooper, C., Sayer, A. A., 2011, Neighbourhood environment and positive mental health in older people: The Hertfordshire Cohort Study, *Health&Place* 17, 867-874
- Comfort, A., 1977, *A Good Age*, London: Mitchell Beazley
- Dinkle, R. M., 1944, Attitudes of children toward supporting aged pare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9, 370-379
- Golant, S. M., 1982, Individual differences underlying the dwelling satisfact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Social Issues*, 38, 121-133
- Heywood, F., Oldman, C. and Means, R., 2002, *Housing and Home in Later Life*, Buckingham ·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 Higgins, J., 1989, Defining Community Care: Realities and Myths,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23(2), 3-16
- Konots, P., 1998, Resisting institutionalization: constructing old age a negotiating home, *Journal of Aging Studies*, 12, 167-184
- , 2004, Local biology: reclaiming body matter, *Philosophy in the Contemporary World*, 11(Special Issue 1), 87-93
- Levin, J., & Levin, W, 1982, *The functions of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New York: Harper & Row.
- Nair, K., 2005, *The physically aging body and the use of space*, Routledge, 110-117
- Prezza, M., Amici, M., Roberti, T., Tedeschi, G., 2001, Sense of community referred to the whole town: its relations with neighboring, loneliness, life satisfaction, and area of residenc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9(1), 29-52
- O'Brien, P., Caron, S., Mortenson, P., Dyck, I., 2002, Environmental analysis: insights from sociological and geographical perspectives, *Canad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9(4), 229-238
- RoJo Pérez, F., Fernández-Mayoralas, G., Rodríguez-Rodríguez, V. and RoJo Abuin, J. M., 2007, The environments of aging in the context of the gloval quality of life among older people living in family housing, *International and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Springer, 123-150
- Ruddick, W., 1995, *Transforming homes into hospitals*,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Baltimore, 166-179
- Wiles, J., 2005, Conceptualizing place in the care of older people: the contributions of geographical gerontology,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4, 100-108

Wiseman, R. F., 1980, Why Older People Move:
Theoretical Issues, SAGE

3. 단행본과 보고서

이은미, 2012, 연령별 소비구조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삼
성경제연구소

고정민, 2002,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험, 삼
성경제 연구소

김진애, 1994, 우리주거문화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서
울포럼

김흥규, 2008, Q방법론: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
용, 커뮤니케이션북스

박재간, 2002, 노인전용주거시설의 개발전략, 아시아미디
어리서치

원용희, 2009, 현대 실버타운 사업계획·개발: 이론 및 사
례연구, 大旺社

임철우·윤종숙, 1993, 노인을 위한 공간, 경춘사

Altman, Irwin & Chemers, Martin, 1980, Culture
and Environment,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Valentine, G., 2009, 사회지리학, (박경환 역). 논형